

영암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완료

대기질 측정결과·기상상태 등 쉽게 확인

영암읍 카페베네 앞·삼호읍 중앙초 앞

영암군은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높아짐에 따라 대기질 정보와 기상상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영암읍(카페베네 앞)과 삼호읍(중앙초등학교 앞) 2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영암군 도시 대기측정망 수치를 실시간으로 받아 미세먼지 등 대기질 측정결과를 수치, 캐릭터, 색상(파랑(좋음), 녹색(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나쁨))으로 알기 쉽게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도와주기 위한 신호등이다.

유기봉 영암군 환경보전과장은 "10월~3월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만큼 대기질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매우나쁨으로 표시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국무총리상

지역상가 홈페이지 운영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목포시가 지자체의 우수한 지역정보화 과제 발굴 및 공유를 위해 개최된 제36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9일과 20일 인천에서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자체 담당자, 외부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6개 시·도에서 제출한 과제 중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상위 10개 과제가 발표됐다.

전남도 대표로 참석한 목포시 정보통신과 양은영 주무관은 '지역상가 홈페이지 운영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무총리

상(우수)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목포시가 2007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상가 홈페이지 운영 사업은 개별 홈페이지 제작이 어려운 소규모 상가의 인터넷 홍보를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대신하는 사업이다.

지난 해부터는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개발하고,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취득한 정보와 사진으로 상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완도군, 장보고대사 업적 알리기 나서

특별 강좌 실시·창작 판소리 공연 펼쳐

완도군과 (사)장보고연구회는 지난 20일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알리고자 특별 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강좌에는 신지, 고금, 약산면 주민들과 완도중학교 및 완도수산고등학교 학생 100명 등 총 500여 명이 넘게 참석했다. 강좌는 현재 목포대학교 교수

이자 장보고해양경역사연구회장인 강봉룡 교수가 맡았으며, 강 교수는 해양 역사에 대해 조예가 깊은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강봉룡 교수는 장보고 대사를 상세히 조명하면서 그가 당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시대 상황과 당나라에서 활약을 강조해서 알

렸으며 완도가 우리나라 해양 역사의 중심지임을 강조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특강 강사로 나선 신우철 완도군수는 "장보고 대사의 도전, 개척 정신을 우리 군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완도로서 가능한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신 장보고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인 장보고' 창작 판소리 공연 중 전반부인 장보고 대사의 소년기, 당으로 건너가 활약하는 내용에 대한 이재영 명창의 판소리 공연도 실시돼 장보고 대사의 업적 알리기 강의와 잘 어우러졌다는 평이다.

완도군과 장보고연구회는 앞으로 전문 강의와 더불어 군민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장보고 업적 알리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벗짚환원 지원사업 2억원 투입

논 지력증진 위해



진도군이 친환경 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해 2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친환경단지 지력증진 벗짚환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원단가는 1ha 당 20만원이며, 최대 10ha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사업희망지는 9월말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10월~11월 중 현장 확인을 거쳐 12월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벗짚환원 사업은 화학비료 사용 등으로 지력이 떨어진 논에 벗짚을 잘게 잘라 환원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지력을 증진해 각종 병해충 저항력 향상과 밥맛을 좋게 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벗짚 환원으로 논에 유기물 함량이 증가하고 친환경 벼 생산량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벗짚 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함평군, 암 관리사업 평가 '최우수상'

함평군보건소가 최근 열린 2019 전라남도 암 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지역특화사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 주최로 열린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암 관리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평군은 올해 간암 발병률의 약 80% 가량을 차지하는 만성간염을 조기발견·치료하기 위해 간암 관련 지역특화사업을 추진, 간암 위험군 740명을 대상으로 B형·C형간염 항원 항체검사를 실시했다.

그중 B형 항체가 미형성된 57명에 대해서는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미 감염된 B형·C형 간염

환자(B형 15명, C형 3명) 18명에 대해서는 지역병원을 통한 연계치료를 실시했다.

또한 간암 및 간염의 위험성과 전파방법, 치료법 등을 교육하는 한편 조기검진을 적극 독려한 결과 지난 2017년 48%를 기록했던 간암 조기검진률이 올해 약 70%까지 대폭 상승하는 등 예방·관리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다.

정명희 함평군 보건소장은 "암은 식생활 및 행태개선 사업 등을 통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며, "특히 지역 사망원인 1순위가 간암인 만큼 이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간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장흥군, 악취저감제 시연회 개최

장흥군은 지난 20일 용산면 운주리에서 '유기농 액체비료'를 이용한 악취저감제 시연회를 열었다.

지역 축산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시연회는 축사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고 청정한 농장환경을 가꾸기 위해 마련됐다.

악취저감제는 유용미생물이 포함된 '숨토바이오' 활용 탈취제다.

축사 내부에 안개분무로 살포하면 악취 원인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을 분해하면서 악취가 70% 이상 저감된다.

사용 후에는 사람의 코로 악취를 느끼기 미미하고, 파리와 모기 등 해충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시연회에 참석한 축산농가는 축사배출시설에서 악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축사환경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강진군, 블로거기자단 팸투어 실시

강진군이 지난 21일 부터 22일 까지 1박 2일간 제6기 강진군 블로거기자단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제6기 블로거기자단 팸투어는 서울, 경기, 충남, 경남 등 각지에서 선발된 50여 명의 전문 블로거로 구성되었다.

전국 단위로 구성된 블로거기자단은 스스로가 1인 홍보대사가 된다는 생각으로 태풍 타파가 북상

하는 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팸투어에 참여했다.

블로거기자단은 마량향을 방문해 신선한 찰전이를 맛보고, 고려청자박물관, 한국민화뮤지엄, 다산박물관을 관람하는 등 강진의 음식문화와 우수한 문화적 유산을 직접 체험하였다.

강진=김영일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